

## 춤에 몸을 맞추기보다 몸에 춤을 맞춰야죠

### 장애친구와 춤 나눔 꿈꾸는 무용가 이지현

다른 어떤 예술세계보다 장애가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장르가 있다. 바로 '무용'이다. 무용가에게는 '경증'장애조차 '무겁게' 아니 '무섭게' 다가온다. 그만큼 몸의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이 잔인할 정도로 엄격하다. 자신의 몸을 통해 이를 진지하게 되문고 있는 무용가, 무용이론가 혹은 무용치료가 있다. 이지현 씨를 만나, 그의 삶과 무용세계, '몸과 춤'에 관한 생각을 들어봤다.

글 김승현 무용평론가,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박정훈



#### 나는 '장애무용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통 장애를 가진 무용가들을 장애무용가라고 부르곤 한다. 장애무용가라니,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조어인가. 무용가에게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어렵고, 또 장애를 갖고 있는 무용가가 그것을 스스로 밝히기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여성은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기 마련이다.

그는 자신은 장애무용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극구 사양했다. 스스로 장애무용가라고 생각해보는 적이 없다는 말이다. 지금은 댄스 테라피스트(Dance therapist)로서, 아동, 발달장애, 여성 등을 치료한다고 했다. 무용평도 한다고 했다. 장애무용가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는데,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나는 그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 그래서 데이트를 신청했다.

세차게 밀어붙여 가장 가까운 그 주 일요일 데이트 약속을 얻어냈다. 요즘 자주 무대



에 등장하는 젊은 현대무용가 류장현의 공연을 함께 보고 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마침 류장현의 무대도 ‘병신춤’으로 유명한 공옥진의 춤세계와 삶을 재조명하는 자리였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술술 풀려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일이 너무 쉽게 이뤄진다고 싶더니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약속한 날 ‘밀양’에 다녀와야 한다고 했다.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강하게 읽혔다. 하지만 그가 밀양에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날 대학로 카페에서 그를 ‘억지로’ 만났다.

### 평생 춤과 함께 살아오다

“문득 제가 다시 춤을 출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사실 공연 무용가가 아니었을 뿐, 춤을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춤이) 움직이며 즐거울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춤을 놓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누가 공연하지 말라고 해도 내 공간에서 춤을 추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사고로 다리에 경증장애가 생긴 후 문득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연습할 때마다 늘 사용했던 1인용 바(Bar)를 다시 꺼내보았다. 집에서 혼자 음악을 틀어놓고 기억을 더듬어 몸을 풀었다. 그러나 그가 30년 넘게 배운 춤은 한쪽 다리가 조금 짧아지자 더이상 출수 없는 춤이 되어 있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용에 첫발을 디뎠다. ‘하꼬방’에 장판 하나 깔아 놓고 매섭게 가르치는, 최승희의 제자이기도 한 장흥심 할머니에게 처음으로 손짓, 발짓, 장구연주 등을 배웠다. 굳이 따지면 한국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다가 중2때부터 임성남 선생에게 발레를 배웠고, 서울예고에 진학했다. 등하교 때도 윈스텝, 투스텝, 호핑스텝 등 춤박자로 걷고 뛰었으며, 밤이면 아파트 밖 복도에서 ‘미친년’처럼 춤을 추던 때였다. 그러던 어느 날 현대무용가 마사 그라함을 알게 됐다. 뒤늦게 시작한 발레로는 도저히 자리 잡을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 때 즈음 만난 현대무용 클래스는 또 다른 세계의 발견이었다. 그는 자유로운 몸의 실험이 가능한 현대무용으로 옮겼다.

그는 몸에 항상 집중했다. 시간만 나면 움직여 몸을 실험했다. 몸이 피곤했다. 몸과 머리의 균형이 깨지는 것 같았다. 불안했다. 한동안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서로 도와주는 지점’을 발견했다. 튼튼한 몸이 더 오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식이 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서양춤에 동양적 방법론을 가미한 마사 그라함의 방법론은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무용을 통해 머리가 정돈된 이때 그는 이미 벌써 무용치료에 관심을 가졌는지도 모



른다. 그 균형점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 대학을 다니며 그는 현대무용과 함께 사회과학도 열심히 공부했다. 졸업 후에는 한국춤, 발레, 현대춤의 3분법을 깨는 진보적 무용단을 만들어 활동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무용뿐 아니라 국선도, 기천문, 쿵푸, 요가 등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탐구했다. 그러다가 2000년에 밀양으로 내려갔다.

### 밀양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올해 ‘밀양’은 이름만큼이나 뜨거웠다. 이창동 감독이 이창준 소설을 영화화한 <밀양>이 칸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이라는 좋은 성과를 얻으면서다. 하지만 이지현 씨가 서울을 떠난 건, 영화의 주인공처럼 절망에 따른 낙향은 아니었다.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희망을 갖고 내려온 ‘브나로드’라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 한 무용평론가는 그의 밀양행을 ‘숨었다(密)’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작 이지현 씨는 ‘밀양’을 ‘빽빽한 햇빛’으로 풀었다. “해가 남다르다. 낮의 태양은 정말 볼 만하다. 양기가 정말 대단하다. 끝내준다”고.

밀양에서 그는 새롭게 시작했다. 밀양의 여유와 치열한 햇빛은 춤 창작과 무용을 가르치는 일에서 노상 느끼던 갈증의 근원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다. 춤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혼자 책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무용을 통해 몸과 마음을 바로 잡는 ‘인간의 치료’에 관심이 갔다. 그렇게 3년을 혼자 궁리하다가 2003년 서울여대에 진학하여, 국내 무용치료의 개척자인 류분순 선생으로부터 무용치료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좀더 확실한 방향을 잡기 위해 2005년 박사과정에 들어갔다. 본격적으로 ‘몸과 마음을 위한 무용치료’를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경증장애’를 입은, 그러나 무용가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고가 난 것이 바로 그때다. 밀양의 장한 태양이 누엿누엿 넘어가는 5월의 어느 때, 딸과 함께 목욕하고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술에 취한 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려든 것이다. 딸은 기적적으로 경상이었으나 이지현 씨는 왼팔 아래 뼈가 부러져 다섯 조각 났고, 오른발 발뒤꿈치 뼈는 ‘폭발’해버려 수술할 수조차 없었다. 대퇴골, 슬개골도 부러지고 관절연골은 없어졌다. 바바라 크루저가 쓴 의도와는 약간 다르지만 ‘그녀의 몸은 전쟁터’였다.

### 아름이 신선하게 느껴질 때까지

“뼈가 부러지면 심한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마약계 진통제를 주더라고요. 항상 몽롱해요. 아픔에 대한 기억, 상처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희한하게 고통의 켄더가 없어요. 그저 몽롱해요. 1년 반쯤 지나자 좀 깨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론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드디어 제 인생에 휴식을 찾아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바쁘게 몰아쳐 살아왔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쉬지 못하니 하늘이 먼저 선택해준 거지요.”

다친 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일까. 혹시 아직 마약류 진통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 낙관적이고 편안해 보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어요. 목발을 놓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전혀 제대로가 아니었어요. 목발을 짚기 이전의 저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목욕탕은 어떻게 갈 것이냐 등 남을 의식하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연골이 사라졌으니 충격을 완화하지 못해 관절염 상태여서 노상 아프고 부어 있는 상태예요. 오른쪽 다리가 3cm 짧아져 있었어요.”

다리가 3cm 짧아진 것은 단순히 짧아지기만 한 것이 아니다. 골반이 비틀어지고, 내장이 뒤틀려 골격뿐 아니라 밸런스가 깨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오른발의 통증 때문에 중심을 왼발로 감당해야 했다. 오른쪽 발바닥의 아치가 들리면서 자꾸 발이 뒤틀려 걷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수술의 고통, 그건 겪어본 사람만 안다. 나도 대형 개복(開腹)수술만 3번 해봐서 안다. 그 피곤함, 저림, 아픔, 몽롱함, 견딜 수 없는 짜증, 한 걸음 떼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침대에서 화장실 가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프고 힘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장애인이 유명한 구두 디자이너가 돼야 좋은 물건이 나올 거예요. 아예 제가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워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 다리의 균형이 안 맞아서 오른발 신발의 굽을 3cm 높여보려고 구두방을 찾았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구두방 아저씨는 그런 요구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고 했다. 장애인들



“조금만 안내해주면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휠체어에 의존해 사는 친구들이 내면의 소리와 움직임에 따라 춤을 춥니다.” 무용가 이지현 씨는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이후 장애인에 대한 무용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팡이를 짚은 채 무용치료를 나섰다. 사진은 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 무용치료 세션의 모습. /사진 여성플라자 제공

의 사소한 요구는 그렇게 쉽게 무시된다.

“그런데 남들이 다친 저보다 더 괴로워해요. 저도 안 아플 때 아픈 사람 보면서 사실 그랬고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못할 짓이야. 하지만 당사자는 달라요. 비장애인들이 보내주는 여러 시선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읽을 수 있더라고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장애의 고통은 그저 불편함일겠죠. 하지만 제 경우 아픔이 익숙해지면서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했고요.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귀찮기도 하지만 계속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는 자극이기도 했습니다.”

### 목발 짚고 전국을 누비다

지난해 그는 한국댄스테라피협회의 일을 맡아 했다. 지난해 5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무용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 지팡이를 짚고 경기, 충남, 경남 등에서 무용치료를 나섰다.

“KTX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또 무용선생이었으면 불편했을 거예요.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니 가능했지요. 정신지체아들은 인지력만 좀 떨어질 뿐 느끼는 능력은 다치지 않았거든요.”

지난 3월 보고서 작성을 끝내고 자신의 몸과 싸운 1년간의 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작게 시작했지만 분명히 가능성을 봤어요. 사리사욕 없이 소외계층, 아픈 사람에게 다가 가면 춤 콘텐츠 개발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분야가 아직 정립돼 있지 않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제가 그리는 그림은 ‘정서’에 초점이 맞춰





저 있습니다. 자신의 주체적 힘을 갖게 하고, 자신만의 느낌을 표현하게 하는 근원은 개인적 ‘정서’거든요. 그런 고유의 느낌을 몸으로 직접 표현하는 경험은 몸과 마음이 만나는 또 다른 탄생을 함축하지요. 이런 춤에 대한 ‘정서적 접근’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상황에서는 오히려 버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는 앞으로 이 작업을 ‘깊게 고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그는 박사논문 준비에 전념할 생각이다.

“현장에 들어가 구체적 요구를 확인했어요. 장애아들의 부모 마음도 이해했고, 기관들의 상황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달리 병원에서보다는 사회복지관에서 무용치료가 활발히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특히 노인과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요구는 상당히 높지요. 앞으로는 대상의 폭을 넓혀 여러 장애인들에게 춤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 내 몸은 나의 ‘취미’

“작년 여름이었어요. 목발을 짚고 있는 저에게 장애여성과 청년들에게 무용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이 왔어요. 음악도 준비하고 다양한 동작도 생각하면서 충청도의 작은 도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휠체어를 벗어나면 조금도 이동할 수 없는 지체부자유자 등 다양한 장애인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어떤 이에게는 음악이, 어떤 이에

게는 움직임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도 목발을 짚고 진행했는데, 그 상황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싶기도 하고요”

다친 후 처음 떠난 혼자만의 지방 외유에서, 그들의 아픔에 비교하면 본인이 아픈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는 자신의 아픔을 잊고 함께 할 수 있는 춤 작업을 찾아 정신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수화로 음악을 들려주고, 움직일 수 없는 몸을 배려하며 춤을 추는 법을 찾고, 서로가 서로를 봐주면서 자신만의 장애의 벽을 함께 허무는 작업부터 하기 시작했다. 특히 장애라는 이름으로 절망해버린 몸, 사용할 수 없어서 무관심하게 방치해둔 몸을 스스로 쓰다듬고 내 몸의 일부로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은 장애인이 춤을 추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자기인식 과정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조금만 안내해주면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휠체어에 의존해 사는 친구들이 내면의 소리와 움직임에 따라 춤을 춥니다. 그들의 눈빛은 보다 창의적이고 자신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춤을 가르쳐 달라는 듯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과 내가 같은 것에 목말라하고 있구나. 그리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몸의 몇몇 부분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왜 춤을 못 추느냐는 거지요. 저는 ‘앞으론 병신춤 추겠네’하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도 들었고, 저에게 ‘춤을 몸으로만 추나’ 하는 화두를 주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친 후 제겐 아주 새로운 길이 열린 것 같아요. 그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 내 몸이 나의 ‘취미’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지금 나의 몸에 맞는 춤을 다시 찾아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애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방안을 고민할 겁니다.”

이 씨는 “언젠가 어느 출판에서 (내가 안무한) 춤 창작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씩 웃었다. 몸은 물론 정신이 살아 있는 그의 멋진 새로운 춤이 머잖아 나타날 것 같다.

글쓴이 **김승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와 동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프랑스 파리 III 소르본 누벨 대학에서 국제문화정책과 예술행정 관련 고급전문학위를 받았다. 현재 <문화일보>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이야기가 있는 미술관>과 <축제 만들기>가 있다.